

‘한 사람의 열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으로...’

2021.11.11. 청주작은도서관협의회 이나양

1.

며칠전 11월3일(수)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는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2020년에는 ‘코로나와 청주시작은도서관’이란 주제로 비대면이라는 아주 낯선 방식의 포럼을 진행하였다. 전 국민 모두가, 나아가 전 세계가 대 혼돈을 겪은 코로나라는 낯선 시기를 건너온 지금, 작은도서관은 작년보다도 더 어렵고 혼란의 시기를 넘는 것 같다. 청도협에 가입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도 어려운 가운데 운영자(관장, 자원봉사자, 활동가등)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가 속해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6년 청주시에 등록된 이후 대출 반납 업무는 무리없이 진행되지만, 프로그램 운영, 도서 선정 및 구입, 장서점검, 독서 문화관련 행사, 동네 축제 참가,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북 큐레이션등의 다양한 일들은 담당자가 별도로 없으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올해는 다행히 ‘충북여성 인턴사업’으로 ‘사서 매니저’가 배치되어 무리없이 운영되었지만 내년은 또 어찌될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인 것을 보면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운영은 참 걱정이다. 아울러 배치된 사서 매니저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취업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써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점점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도협에 가입하는 작은도서관은 오히려 늘어 현재 51개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청주시에 전체 등록된 도서관이 110여개가 조금 넘는데 잘 운영되지 않는 작은도서관이 많다는걸 감안한다면 청도협 가입 도서관수는 운영되는 도서관 전체의 과반수를 훨씬 넘을것이라 보여진다. 어찌면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연대의 힘으로 함께 넘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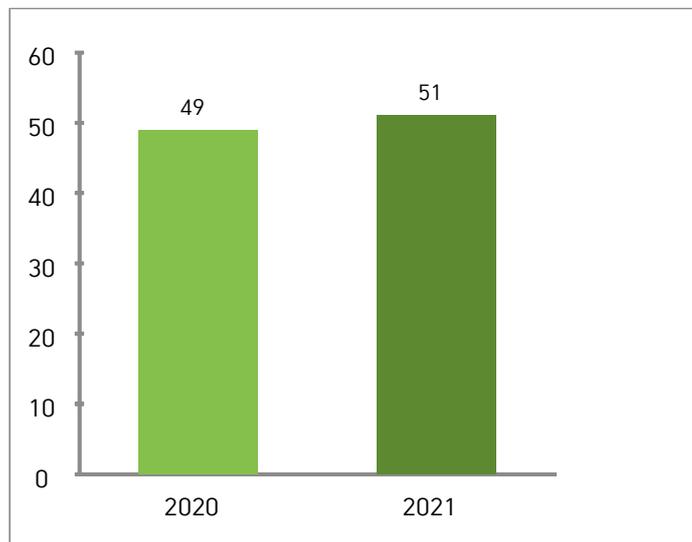
그렇다면 어떻게 손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것인가.? 이것이 지난 11월4일 청주에서 진행된 청주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포럼의 주요 내용이고 이

자리도 그러한 자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청주 정책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모아 들려 드리고자 한다.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 현황 (2020년, 2021년을 중심으로)

- 2015년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출범 (청주, 청원 협의회 통합)
- 조직 : 회장, 부회장, 감사등 임원진과 정책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 편집위원회 구성함. 매월1회 정기 월례회, 사안별 위원회 회의, 비정기 임원회의 개최함. 2021년 11월 현재 51개 작은 도서관 가입함.
- 예산 : 자체예산 (작은도서관 가입 연회비 6만원)과 청주시 지원사업 (책축제 15,520천원 / 소식지 11,640천원 (2021년 전액삭감))
- 사업 : 연1회 정기 이웃도서관 견학, 연1회 정기 회원 워크샵등 조직사업을 진행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책축제 연1회, 정책포럼 연1회, 작은도서관 소식지(청포도) 연 2회 발행등의 사업을 진행함. 소식지 사업의 경우 2021년 청주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발행 중단함. 2021년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진행(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지원사업
- 기타 : 2021년 대외협력위원회 신설, 2021년 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진행

※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가입 현황 : 2020년 47개관 / 2021년 51개관



2.

윤송현 연구위원의 발표를 통해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수 있게 해주었고 타 지자체의 현황, 유사 기관과의 정책비교등 청주 작은도서관 정책에서 청주의 현주소를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제안한 작은도서관 정책은 앞으로 계속 토론하고 방안을 연구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나은 정책으로 나아갈수 있게 해야할 부분이다. 관련하여 청주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 또는 문제의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위드 코로나 작은도서관, 우리결의 따뜻한 안전망으로.
- 지원은 늘 일방적, 소통과 협치의 민관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룰것인가?
- 작은도서관, 건강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식의 평가지표를 만들자.
-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 광역시 마을공동체 기본 조례안 중 마을 활동가 지원 부분>
- 작은 도서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을 도와야하는 협의회, 협의회역할을 잘 수행 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
- 서로 위로하고, 힘을 모으는 협의회.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만 초점을 둘 것인가?
- 협의회,임원과 위원회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참여로 어려움 함께 나누기.
- 도서관과 책에 대한 인식 확장으로 삶의 수준과 품격을 높이기.
- 힘들수록 내가 먼저 나서서 같이 하자고 독려.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린다.

첫째, 민.관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는 지자체의 사례 둘째, 제안하신 공공형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공공형 작은도서관의 지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문체부가 제시한 기준과 시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셋째, 발표하신 연구 방안외 향후 추가로 연구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

3.

올해 청주 정책포럼은 또 한번 큰 의미를 과제를 남겨주었지만 준비할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이 수
년째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인 듯하다.

청주포럼에 참여한 청주시 의원의 ‘10년전에도 전담인력의 필요성과 민관
거버넌스등의 토론이 있었다’는 말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비교적 최근에 일하
게된 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지원’ 이라는 제도는 오히려 줄세우
기가 되고, 행정적 일처리는 운영자들에게 자괴감을 안겨.... 짧게는 1년, 길게
는 20년 넘게 작은도서관을 위해 애쓰는 운영자들은 점점 힘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별로 나아질 것 없는 정책 포럼 대신에 ‘넋두리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잠시 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막상 포럼을 진행해
보니 토론자들과 zoom 통해 참여해주었던 여러 운영자들의 마음이 점점 전해
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함께 한다는 것은, 힘이 나는 것이다’를 느낄수 있었
다.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소중한 지금이다.